

어린이 책꽂이



▲그 녀석 슈라에겐 별별 일이 다 있었지=어두운 상징들의 거리로 공쿠르상을 수상한 파트릭 모디아노의 신작 동화...



▲출발기 요정=파스텔 톤으로 초록색의 싱그러움과 포근함이 돋보이는 그림 동화...



▲용감한 유리병의 바다 여행=‘우성’이라는 소년의 편지를 담은 유리병이 낙동강 하구에서 시작해 태평양을 지나 남극까지 바다 여행을 하는 이야기...



▲위인들의 책상=아인슈타인, 톨스토이 등 위인들이 놀이를 하고 꿈을 꾸었던 여러 모양의 책상을 소개한다...



▲다 알지만 잘 모르는 11가지 한글 이야기=한글 창제를 다룬 동화 ‘조정리 편지’를 썼던 작가 배유안씨가 한글 창제에서 현재까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썼다...



▲못 말리는 단짝친구=동화책 읽는 거인의 아홉 번째 권. 나와 달라서 더 소중한 단짝친구에 대한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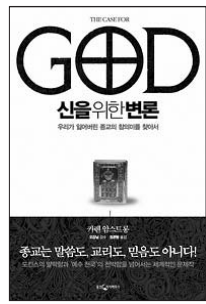


▲아빠 몰래 할머니 몰래=작가가 읽어 주는 그림책 시리즈의 두 번째 책이다. 어느 날부터 아빠의 차 안에서 걸거리에서 주운 폐지들로 가득하다...

▲나는 열세 살이다=열세 살 사춘기 아이들이 겪는 5가지의 이야기를 그린 청소년 단편소설 모음집...

삶에 지친 영혼 '종교와 신'에 의지해 볼까

신을 위한 변론 카렌 암스트롱 지음



‘정의란 무엇인가’ ‘도덕, 정치를 말하다’ 등 인문서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종교의 참의미를 고민하는 문제작이 번역·출간됐다.

영국의 세계적인 종교학자이자 종교비평가 카렌 암스트롱의 신작 ‘신을 위한 변론-우리가 잃어버린 종교의 참의미를 찾아서’는 신(神)과 종교의 핵심은 무엇인지를 파고드는 책이다...

한때 수녀이기도 했던 저자는 ‘만들어진 신’을 쓴 리처드 도킨스 등 무신론자 과학자들이 ‘신은 없다’고 주장

하자 ‘신은 살아 있다’는 반박이 종교계에서 잇따르고 진화론과 지적설계론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지만, 사실 그런 논쟁은 종교 문제를 다루는 데는 무의미하다고 말한다.

그는 지난 수천 년간 인류는 이미 신, 브라흐만, 열반, 도(道)라는 이름으로 신성한 어떤 것을 만나왔다고 지적한다.

인류는 지적인 존재이기에 앞서 ‘종교적인’ 존재였으나 근대 이후 ‘말씀’, ‘믿음’, ‘교리’ 등이 종교생활의 중심을 차지하면서 자신의 언어와 한계를 넘어서 초월적인 영성과 자연스럽게 만나는 법을, 자신의 영혼을 가꾸는 법을 잊어버리게 됐다.

저자는 인간 경험의 질반을 차지하던 뮈토스(신비)의 영역이 어떻게 로고스(이성)에 의해 파괴되는지를 시대를 따라 종교사를 짚어가면서 꼼꼼히 추적한다.

그러면서 이성이 지배한 근대 이후 종교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면서 ‘예수전교 불신지옥’을 외치는 왜곡된 근본주의자와 그 생생한 무신론자들이 등장해 우리 세계를 영적 불모지

로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목소리 큰 종교적·세속적 교조주의들이 넘쳐나고 있기는 하지만 모름(unknowing)의 가치를 인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중략) 우리에게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침묵하고 말을 아끼고 외경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오랜 종교적 전통이 있다. 이 책에서는 바로 그것을 탐구하고자 했다. 깨우침의 조건 중 하나는 감히 엄두도 못 내던 진실을 인식하기 위해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꺼이 놓아버리는 것이다.”

(머리말 중) 저자는 “종교는 본래 사람들이 생각한 무엇이 아니라 행한 무엇이었고 종교의 진실은 실천적 행동으로 얻어지는 것이었다”며 “운전교본과 교통법규집만 읽고서 차를 운전할 수 있듯이 라라 생각해보자 소용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즉, 자아(ego)의 틀 ‘밖에 서서’ 신을 체험하게 하는 비결을 터득한 사람들은 ‘저 너머 어딘가’의 외적 진실일 뿐 아니라 자기 존재의 가장 심오한 차원



저자는 “종교가 우리 마음의 새로운 능력을 발견하도록 가르치는 실천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과도 일치하는 삶의 초월적 측면을 발견했으며 그것이야말로 종교와 신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또한 “종교는 우리 마음의 새로운 능력을 발견하도록 가르치는 실천이다”고 강조하는 그녀는 잃어버린 종교의 깊은 차원 ‘침묵의 영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그런 의미에

서 이 책은 딱히 특정 종교에 귀의하고 싶지는 않지만 나와 우주 뒤에 있는 신비가 어렴풋이 느껴지는 사람, 삶에 지친 내 영혼을 보듬는 방법을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던 이들에게 잔잔한 울림으로 다가간다. (웅진지식하우스·2만2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중·일 신화에 나온 토끼 이야기

十二支神 토끼 이원복의 지음



십이지신(十二支神) 중의 하나인 토끼. 토끼의 상징코드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나약한 이미지가 아니다. 열두 마리 짐승 가운데 쥐 다음으로 덩치가 작지만 호랑이와 용 사이에 위치한 점도 각별하다.

한국과 중국, 일본 문화 속 토끼의 환의를 분석한 ‘十二支神 토끼’가 출간됐다.한중일비교문화연구소(이사장 이여령)가 진행하는 유한길벌리우의 한·중·일 비교문화상징사전 발간사업 시리즈의 두 번째 책이다.

토끼를 뜻하는 한자어 ‘묘(卯)자’에는 만물의 성장과 변창, 풍요의 의미가 있다. 이는 농경민족의 특성이자 토끼의 속성이다. 토끼는 어느 짐승보다 생명력으로 가득 찬 상징코드의 셈이다.

책은 한·중·일의 신화와 전설, 회화, 서사, 종교에 등장하는 토끼와 관련된 이야기를 폭넓게 다룬다. 결론적으로 책은 토끼의 상징성을 한·중·일로 확장해 보면 공통으로 유추할 수 있는 토끼의 모델과 문화 유형을 그려낼 수 있으며, 이런 시도를 통해 새로운 동북아의 문화 패러다임에 다가갈 수 있다고 말한다.

가미카이토 케이치 일본국제문화연구소 교수, 이원복 국립광주박물관장, 천련산(陳連山) 베이징대 교수 등 한·중·일 저자 10명이 공동 집필했고, 이여령 이사장이 책임편집을 맡았다.

(생각의나무·1만5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추억과 실존의 공간 골목길

골목길에서 마주치다 이경한 지음



골목길은 추억과 실존의 공간이 양초하는 장소다. 골목에서 성장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추억의 장소가 되고 사회적 소수자에게는 고단한 삶을 영위하는 실존의 공간도 된다.

사회학자이자 지리학자인 이경한(전주교육대 교수)씨가 우리 주변의 익숙한 골목길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탐구한 ‘골목길에서 마주치다’를 출간했다.

책은 이씨가 용역을 받아 추진한 연구 프로젝트의 보고서 일련으로 발간한 것이다.

전라도 지역을 다루고 있어 우리에게도 친숙하다. 옛 남광주역 인근 시장과 여인숙이 동거하는 거리 병무청안길, 그냥 지나가기도 좁은 말바우 시장 골목길 안에 꼭꼭 들어찬 노점상들의 행렬, 흥어가 빛어낸 거리 연산로, 담주리와 천변리 골목이 보여주는 생생한 대문의 변천사, 풀담의 진화를 보고 싶다면 꼭 들러야 할 전남 담양군의 대방 마을 골목 등 도심과 교외를 막론하고 우리 주변의 다양한 골목길 풍경을 빼곡히 담았다.

저자는 골목길의 풍경을 통해 굴곡진 한국의 현대사를 되돌아 본다.

학자의 글 담겨 곳곳에 지역의 유래, 골목의 형성과정 등 이론적 내용이 추가되지만, 결코 어렵지 않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우리의 삶 이야기들이다.

(푸른길·1만1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예술작품에 담겨있는 속임수

눈속임 그림 이연식 지음



모나리자의 신비한 미소가 그림 속에 숨겨진 눈속임과 같은 미술기법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모나리자의 입술에 숨겨진 미소가 담겨있고, 보는 사람의 눈에 착각을 일으키는 교묘한 기법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광주 출신 미술평론가 이연식씨가 예술 작품에 담겨있는 수많은 속임수를 소개하는 ‘눈속임 그림’을 냈다. 보는 사람이 진짜 인물이나 사물인 줄 알고 감쪽 놀라게 할 목적으로 그려지는 일명 ‘눈속임 그림’(트롭프뢰우)의 다채로운 면모를 소개한다.

죽은 채 매달려 있는 새와 벽에 꽃힌 종이, 판화나 인쇄물을 흉내 낸 그림, 그림 위의 그림, 선반 그림, 조각을 흉내 낸 그림, 그림의 틀(프레임)에서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그림 등 다양한 눈속임 그림의 세계로 안내한다.

그림 속 인물이 액자 밖으로 나오고 있는 착각이 정도로 정교하게 그려진 그림 등 흥미로운 뒷이야기 가득하다. 회화의 단면을 벗어나기 위해 그림 속 인물만을 도려내 입체적으로 느껴지게 한 시도 등도 흥미롭다.

한편 이씨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서양화 전공),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이론과 전문가 과정을 졸업했다. 영화와 소설에 등장하는 미술 ‘통념’을 파헤친 ‘미술영화 거트머 보고서’를 출간했다. 서예가 학정 이훈씨의 장남이다. (아트북스·1만5천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Venezia restaurant. Features the slogan "ENJOY THE FOOD LIFE" and "베네치아와 함께 하세요!!". Lists menu items like BBQ ribs, steak, and wine.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062-675-6636, website www.venezia.co.kr, and address: Moa Golf Club 1st floor.